

독서삼매 잠길 독서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문화단체들 앞다퉈 마련

산과 바다로 이어진 긴 행렬에 몸은 던질 수많은 인파들의 손에 들려진 것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계절, 여름이다. 일 년에 단 한 번, 황금 같은 휴가기간에 책이 다 뭐냐고 역정을 내는 사람도 있겠으나, 아끼고 아껴 두었던(?) 책 한 권을 들고 시골집 뒷마루를 찾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게다. 시골 뒷마루 만큼은 아니지만 한여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버릴, 독서삼매경으로 안내할 책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모아봤다.

풀로엠티

교육·문화공동체를 꿈꾸는 풀로엠티(이사장 홍세화)은 여름 내내 다채로운 여름강좌를 선보인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단연 '상상특강 : 책! 책! 책! 짬 읽자!' 이다. 경희대 도정일 교수, 철학아카데미 이정우 대표, 한양대 김찬호 교수, 칼럼니스트 김규항 등이 7회에 걸쳐 고전읽기, 사회사상 읽기, 현대 철학 읽기, 현대건축과 사회 읽기, 교육과 미래읽기, 인문학 책읽기 등 다채로운 독서의 향연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가을 1회를 시작으로 3회의 상상특강을 거치는 동안 김지하, 신영복, 홍세화, 노회찬, 신경림, 박찬욱, 한대수, 장정일, 고미숙 등 내로라 하는 이야기꾼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했다면, 4회를 맞는 이번 여름 '상상특강'은 책을 주제로 하고 있다. 풀로엠티 측은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좀더 정밀하게, 그러나 성급한 마음은 조금 위로하면서, 차별하면서도 꿈꿈하게 책을 읽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해, 책과 함께 현 시대의 정신적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강의는 7월 11일부터 매주 화요일 7시에 시작된다.

풀로엠티는 이밖에도 장석주의 현대시, 강유원의 고전읽기, 김규항의 사상기행, 김교빈의 한국

철학, 김상미의 시창작교실, 장정일의 현대희곡, 중 고등부 논술학교 등 책과 관련한 다양한 여름강좌를 마련한다.

(문의 www.puljib.com 02-734-5953)

국민독서문화진흥회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청계초등학교에서 '서울시민독서아카데미'를 개최한다. 4일에는 독서교육론을 주제로 경기대 평생교육원 최운선 교수가, 5일에는 7차 교육과정과 독서토의를 주제로 독서교육연구회 박정아 부회장이 강연한다. 6일에는 아동문학 활동방안을 주제로 독서교육연구회 이혜옥 부회장이, 7일에는 창의적 독후활동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정성현 소장이 발제할 예정이다. 국민독서문화진흥회의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학교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readingnet.or.kr 02-913-9582)

성북정보도서관

한편 서울시 성북구 성북정보도서관도 여름방학

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읽기 강좌를 마련한다. 재미있는 영어동화 '영어스토리텔링' 과 호기심 역사 논술 '역사야 나오너라', 신나는 독서교실 '명작동화와 책 만들기' 등 다채로운 여름행사를 준비한다.

(문의 www.sblib.seoul.kr 02-962-1081)

#04

수유+너머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지식 생산을 위한 연구공동체를 지향하는 연구공간 '수유+너머' 도 신선한 여름 강좌들을 선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강좌는 역시 오슬로대학 박노자 교수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강의하는 '주변부 제국들의 발자취: 소련과 일제 식민주의 비교' 이다. 반식민주의 해방운동의 세계사적 사건이었던 1917년 10월 혁명을 중심으로 식민모국의 필요에 의해 수탈된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동아시아 주변국의 개발과 수탈,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조망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길 위에서 묻는다, 탈근대 정치의 가능성' 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목주의에 대한 명쾌한 해석과 이주노동자, 평택 미국기지, 새만금 등 최근 한국 사회의 이슈에 대한 답변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마디즘과 이동권, 테크노크라트와 대중지성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대추리, 새만금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는다.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7시에 시작한다.

이밖에도, 죽음이나 부정의 형태로 정의되는 부담의 공동체가 아니라 유머와 생성의 능력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코문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코문주의 선언' 과 우주의 본래적 신비와 마주할 수 있는 '우주의 시공과 생명', 개발주의와 무차별 학살의 시대에 새로운 공간을 모색하는 '콜로니얼, 포스트콜로니얼 모던 서술' 강좌 등도 마련된다. 연구자 개개인의 특이성을 자유롭게 발휘하면서 동시에 전체 집합적 능력

을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수유+너머의 강좌는 우리 시대 책이 담고 있는 화두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www.transs.pe.kr 02-3673-1125)

#05

공간플러스

인문학을 매개로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공간플러스는 7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만남, 나와 너 사이의 불꽃' 이라는 주제로 영화, 음악, 만화, 문학에 관한 강좌를 마련한다. 함께 영화를 보고, 춤추며 음악을 듣고 만화를 그리고 문학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문화들을 제공할 것이다.

관심을 끄는 강좌는 '사막에서 샘 찾기 -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 새로 읽기' 이다.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이 강좌는 《어린 왕자》에서 뽑아낸 다채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심을 끄는 또 하나의 강좌는 '책을 만들자! - 종이 만들기에서 제본까지' 까지로,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수요일 낮에 진행된다. 종이의 탄생서부터 책의 역사, 제본 등 자신의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어른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 다행스럽다.

(문의 www.spaceplus.or.kr 02-765-3617)

가스통 바슐라르는 "책은 꿈꾸는 걸 가르쳐 주는 진짜 선생" 이라고 했다. 이번 여름에는 진짜 선생을 만나는 즐거움 속으로 빠져보는 것도 유쾌한 경험이 될 듯하다. **한민**

취재: 장동석 기자